

경찰청불교회 · 서울지방경찰청불교회 봉축법회

“불심으로 민중의 지팡이 되겠습니다”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현향을 하고 있다.

반듯한 제복을 입은 300여 경찰들이 합장을 하고 목탁소리에 맞춰 반아심경을 독송한다. 대모하는 군중들을 제압하는 모습, 민중의 지팡이가 돼 도둑을 잡는 모습, 살인자를 취조하는 모습 등 그간 뉴스를 통해서 봤던 경찰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경찰은 제복을 말끔하게 차려 입고 합장을 했고, 서울 경찰악대는 씩씩한 행진곡 대신 삼귀의, 보현행원, 청법가를 웅장하게 연주했다. 경례 대신 합장을 하고 선 경찰의 모습은 마치 가림을 수호하는 사천왕들이 합장을 한 모습처럼 보인다.

경찰청불교회와 서울지방경찰청불교회가 각각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법회를 열고 불교계와 경찰 간의 불편했던 관계회복에 앞장섰다. 지난해 어청수 前 경찰청장의 종교편향 발언으로 불교계와 불편했던 관계가 2년 만에 다시 열린 이번 법회로 새 전기를 맞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강희락 경찰청장이 관육식에 앞서 합장 반배의 예를 올리고 있다.

경찰청불교회(회장 박재진)는 4월 2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위한 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대한불교경승단 총재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과 단장 혜종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강희락 경찰청장, 경찰청 경승실장 계성 스님(조계종 포교부장), 서울지방청 경승실장 세민 스님(조계사 주지)이 강단에 입장하면서 시작했다. 법회에 참석한 400여 경찰들은 목탁소리에 맞춰 여법하게 법회를 진행했다.

지관 스님은 법에서 "경찰은 국민을 위해 큰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사건·사고를 책임, 관리, 방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신(身)·구(口)·의(意) 삼업을 스스로 조심하면서 주관과 주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곧 경찰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경찰은 서로가 지혜를 배우고 지비를 배풀며 서로를 위한 삶을 살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독실한 불자로 경찰계에서도 소문이 난 강희락 경찰청장은 인사말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생애를 자연스럽게 설명했다. 이어 "부처님오신날이면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의 참다운 뜻을 되새기며 세상과 인생을 바로 보게 된다"며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목표로 국민에게 작은 것에도 정성

을 다하는 경찰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찰과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은 정견(正見)의 부족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불법으로 무명의 등을 밝혀 국민들이 각종 범죄와 사고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도록 해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포교원과 경찰청 불자회는 이번 법회를 계기로 관계 회복과 함께 그동안 지하에 있던 법당의 지상화를 추진하고, 경찰 포교의 핵심사업인 경찰청 예방규정 및 경승지단장회의, 경승총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불교회의 법회에 이어 4월 29일 서울지방경찰청불교회(회장 임동호)도 부처님오신날 기념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법회"를 봉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천태종 총무원

장 정산 스님,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 관문사 주지 영재 스님, 서울지방경찰청불교회 회원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정산 스님은 봉축사에서 "스스로가 우주의 주인공인 부처로 평등한 마음, 자비의 마음, 공경의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야 할 것"이라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대법회"가 국가발전과 국민안정으로 원만히 회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경찰의 실수로 불교계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최근 경찰청 법회가 전국적으로 봉행되는데 힘써주시는 여러 스님과 불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경찰 직무의 기본인 봉사는 자비의 작은 한

부분으로 많은 경찰관들이 '자비'의 마음을 갖는다는 불교적 마인드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국 15만 경찰들이 더 많은 종교생활과 불교를 접하도록 하기 위해 경찰서의 경승총원과 경승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 밖에도 정기 직장교육에서 종교인 초청강의, 서울시민을 위한 열린 경찰청 만들기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불교회 법회는 전국 곳곳에서 봉행됐다. 4월 19일 전북 지방경찰청불교회를 시작으로 21일 충남지방경찰청불교회와 부산경찰청경승실, 인천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이 봉축법회를 열었다. 23일에는 제주지방경찰청, 28일 경남지방경찰청, 29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국민과 경찰을 위한 법회가 개최됐다.

전국에서 봉행된 경찰 불자들의 법회는 경찰을 위한 불자들의 마음을 담아 경찰의 수고를 격려하고 국민의 지팡이로 거듭날 것을 기원하는 법회였다. 경찰 불자들의 이번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계기로 경승단 활성화와 경찰포교의 재도약이 이뤄질 것 이란 기대가 높다.

글=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o@hanmail.net

“국민과 경찰은 서로를 위한 삶을 살라” 전국 경찰청서 봉축법회 잇따라 열려



중로지역 의경들이 4월 23일 열린 봉축법회에서 <반아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김호철, 서현숙(왼쪽) 경찰청불교회원이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4월 29일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는 부처님오신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왼쪽이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법회에는 300여 사부대중이 함께 했다.

“불교박람회 출품 기념 대축제”

산상차

야생수제 구중우포 뽕잎차

http://www.ggzen.or.kr

NAVER 산상차 판매를 검색하십시오.

“첫서리 맛은 뽕잎차!!! 녹차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첫서리 맛은 뽕잎차는 합천에서 가까운 천연 무공해의 지역 유장 산 자락에 뽕잎의 효능이 최고로 달한 첫서리 맛은 뽕잎을 채취하여 스님께서 직접 구중우포의 전통제법으로 참선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차입니다.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에 보면 뽕나무는 뽕나무의 이끼, 기생하는 벌레까지 모두 약재로 쓰이는 실로 바랄 것이 하나 없는 신이 내린 보약 나무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서리 맛은 뽕잎은 신선 업이라고도 하며 오래도록 다려마시면 신선이 된다고 하여 더욱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첫서리 맛은 뽕잎으로 만든 차는 겨울의 문턱에서 명숙과 우주의 기운을 전해주는 생명을 담은 뽕잎차로 스님이 단연간 연구하여 재현한 차입니다.

2009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전통차부문 베스트 브랜드 수상

당뇨 · 고혈압 · 혈액순환

제품 설명

- 초심(初心) - 맛과 향이 부드러워 누구든지 편안하게 차 맛을 즐길 수 있는 차
- 발심(發心) - 첫서리를 맛은 뽕잎으로 만들어서 깊은 맛이 있으며 효능이 있어 몸에 매우 좋은 차

인론에서 맛과 효능 격찬!!!

- 뉴스포커스 소개 / 데일리 뉴스 소개 / 시사매거진 소개
- 현대불교신문 “호수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연재 / 뉴스메이커 대상수상
- 2009년 스포츠서울이 선정한 전통차부문 베스트브랜드 수상

불교박람회 출품 기념 할인행사

초심(구중우포 뽕잎차) 50,000원 → 35,000원 2통이상 주문시
발심(첫서리맛은뽕잎차) 70,000원 → 50,000원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뽕잎차의 수익금은 전액 금강선원 대웅전불사에 쓰여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참선마을 금강선원
TEL 051)931-9590 / 농협 843162-55-000050 (예금주:금강선원)

뽕잎차 만드는 과정

금강선원 뽕잎 뽕잎 채취 뽕잎 건조

뽕잎차의 효능

1. 당뇨, 고혈압에 도움
2. 혈액순환으로 동맥경화에 도움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중풍, 치매
4. 변비, 이뇨작용, 손발이차고 저린데
5. 잠 잘 때 식은땀, 몸의 붓기 제거

인터넷 체험 후기

- 당뇨에 뽕잎차 최고
- 많은 차를 마셨지만 맛과 향에 탄복한 것은 처음
- 깔끔하고 깊고 그윽한 향에 다른 차를 못마땅하게 할 정도
- 속이 편안하고 정신이 맑아지고 이뇨작용에 좋음
- 당뇨로 건강이 좋지 않아 첫서리 맛은 뽕잎차를 마시며 몸이 가벼워지고 나쁜기운이 해소

— 부산 중구 안미선
— 대구 북구 석현도
— 울산 북구 이용희
— 경북 안동 김정일
— 경기도 용인 박영철